

아람 사람들(2)

주전 733년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겁을 먹은 유다 왕 아하스는 앓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앓수르의 손에 아람은 무너지고 말았다(왕하 16장). 아하스는 아람을 정복하고 다메섹에 있었던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 짓도록 하였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고 여호와와 성전에 옮겨다 놓았다. 결국 그의 이러한 신앙적 범죄는 그가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모욕적인 형벌로 이어졌다(역대하 28:27). 이스라엘 안에는 아하스 이전에도 이미 아람의 신을 섬겨 여호와와 진노를 불러일으킨 역사가 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초기,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가나안 신들과 함께 아람의 신도 섬겼다(삿 10:6).

비를 불러오는 신 하다드

아람 다메섹의 왕 하사엘이 세운 석비와 그의 말 눈가리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아람의 신은 하다드라고 불렸다. 하다드는 앓수르와 바빌론의 아다드 신에서 기원한 비를 불러오는 신이다. 하다드의 한 손에는 번개, 그리고 다른 손에는 철퇴가 들려져 있다. 그의 상징은 황소로 그의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은 물론 앓수르와 바빌론 지역에서도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신상으로 자주 발견된다. 하다드는 성경의 바알과 동일한 신으로 그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또한 아나톨리아에서는 테슈프로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로 불린 신들과 성격이 같다.

중동 지역의 기후는 건기의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덥고 건조한 긴 여름이 지나 비가 오기를 열망했던 이들의 염원은 비를 내리는 신에 중요성을 더했고 결국 하다드는 혹은 바알은 최고의 신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비를 관장했기에 초목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농업과 목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다드는 이 지역의 삶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신으로 섬겨졌다. 지중해변에 위치한 우가릿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신화는 중동지역의 기후가 하다드 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풍요롭게 살게 된 농경을 관장하는 신으로 최고의 신이 된 하다드는 그의 형제 신인 바다의 신 얌과 싸

위 이겼으나 죽음의 신인 못과의 싸움에서는 죽고 만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은 온통 메말랐고 결국 그를 되살릴 수 밖에 없었다. 하다드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중동 지역은 여름이며 그가 살아 있을 때는 비가 오는 겨울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신앙은 이스라엘 안에도 퍼져나갔고 바알 곧 하다드에게 제사 지냈던 북 왕국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와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형벌을 내린 것이다. 결국 엘리야는 어느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고 바알 곧 하다드 신의 제사장들과 겨루어 이겼다(왕상 18장). 하다드에 대한 신앙은 아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뿌리 깊게 박힌 것으로 이는 왕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다윗과 싸웠던 아람 소바의 왕 이름은 “하다드는 도움”이라는 뜻의 하닷에 셸이며(삼하 8장) 유다 왕 아사(왕상 15장)와 이스라엘 왕 아합(왕상 20장)을 괴롭힌 다메섹의 왕은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벤하닷이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흔적

앗수르와 바빌론의 영토가 된 아람지역에 하다드 신을 주신으로 했던 종교적 관습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헬라 문명의 알렉산더와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 이루어진 아시아 정복의 소용돌이 속에 아람 역시 종교적 변화를 겪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운데 유대교와 기독교도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특별히 다메섹의 경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러 가려고 했던 장소이다(행 9:2). 여기서 바울은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어 그리스도교 박해를 위한 공문을 청하고자 하였다(행 9:2). 주후 1세기 로마의 통치 시기에 다메섹에는 이미 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다메섹에도 수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메섹은 아니지만 시리아 영토 내 좀 더 앗수르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두라 유로포스(Dura Europos)라 불리는 유적지에서는 두 종교의 공존의 모습이 발견된 바 있다.

두라 유로포스는 헬라시대와 로마시대에 잘 요새화된 도시였지만 주후 3세기 참혹한 전쟁 이후 버려진 땅으로 발굴을 시작하자 이 시대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전될 수 있었고 “시리아 사막의 폼페이”로 불리고 있다. 주전 2세기 경부터 헬라문명의 상업도시가 있었던 두라 유로포스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후 2세기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유대교의 회당과 기독교의 교회가

발견되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현재까지 발견된 교회 중 가장 오래된 교회로 초대 가정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회당과 교회는 모두 진흙 벽돌로 지은 가정집을 종교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벽면들은 성서와 성인들의 모습을 그린 벽화로 가득했다. 재미난 것은 이 두 건물이 거리상 매우 가깝다는 것과 건축 구조에 있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두 건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벽화의 내용이다. 회당의 벽화의 경우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광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에스더서 등을 표현한 데 반해 교회의 벽화는 예수의 기적이 주요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라 유로포스 뿐만 아니라 아람 지역의 많은 도시들에는 초대 교회와 유대 회당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히려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에 당혹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메섹에서 도망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사건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시리아 지역이 보다 기독교화 되는 데 불을 지폈으리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는 초대교회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시리아 정교회라 불리는 교파까지 형성하게 되었다.